

# WHO 고베 센터 주최 제3회 여성과

정 정 순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과장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세계보건기구 고베센터(WKC) 주최로 제3회 여성과 건강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필자는 보건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의 배려로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성과 건강에 관련된 제1회 회의는 2000년 일본 아오지섬에서, 제2회는 2001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에서 개최된 바 있었으며, 금년에 제3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세계 20여개국의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던 이번 회의의 토의내용은 첫째,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이나 고용, 인권,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가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장애요인을 파악하며,

둘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조사하고,

셋째, 여성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에 대한 전략을 파악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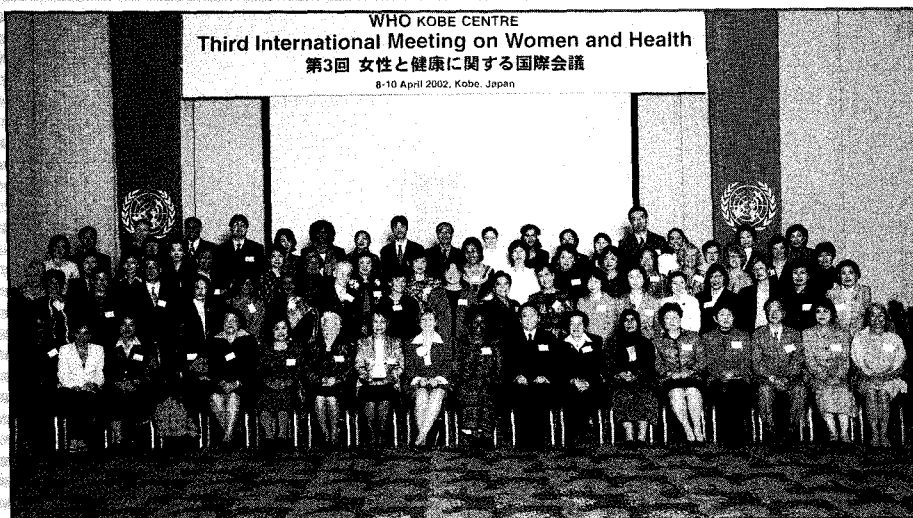
넷째, 여성건강 체계 기획과 수행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지도력 향상을 위한 행동계획 책정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 고베는 지난 1995년에 일어났던 대지진 이후 새롭게 계획된 도시로서 아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일본인의 소식(小食) 습관의 영향이겠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비만문제를 가진 사람이 거의 눈에 띄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평소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협회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터라 이번 회의가 아주 소중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감사했다. 한가지 유감은 여성건강에 관한 회의이지만 참가자 50여명 가운데 남자는 WKC 소장 한사람 뿐이었다는 사실이다.

# 건강에 관한 국제회의를 다녀와서



대부분의 참가국이 안고 있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문제는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에이즈(HIV/AIDS), 비만, 폐경기 골다공증 등으로 거의 비슷했다. 결국 이러한 여성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고용, 경제, 인권,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평등(gender equity)이 전제된 건강한 사회와 경제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나아가 여성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부, 비정부기구(NGOs), 학계, 기업체는 물론 국제적인 협력체계 즉 다부문적, 다국적 접근을 통한 협력체계의 중요성이 피력되었다.

이 또한 우리 협회가 주창하고 있는 성 및 생식보건사업의 기본개념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며, “여성의 발달과 능력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인 건강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WKC 소장의 인사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다. **김영희**